

뉴스홈 | 최신기사

출산율 0.98명...삶의질 높여 출생아 30만명 마지노선 지킨다

송고시간 | 2019-02-27 12:00



『출산장려』에서 전환...의료비·양육비 부담 완화 등 출산·양육 환경 조성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합계출산율 1.0명 선마저 힘없이 무너지며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저출산 추세를 단기간에 되돌릴 수는 없다고 보고 긴 호흡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구학자들 사이에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출생아 수 30만 명' 선을 지키는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정부가 이렇게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데는 그간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며 펼친 출산장려 일변도의 대책들이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국민의 피로감만 높였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실제로 정부는 출산율이 끝없이 추락하자 생산가능인구 부족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져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3년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갖가지 출산장려책을 펼쳤다.

특히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는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을 강조하며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고면서 저출산 극복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런 출산율 제고 노력은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실제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더욱이 2017년에는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에는 0.98명으로 1.0명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청년세대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유아시설이 부족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출산율이 끝없이 미끄러진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상황이 갈수록 악화한 데는 여성과 청년, 아동 등 정책 수요자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뒤늦게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의 큰 틀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바꿨다.

출산율 올리기에 급급하던 데서 탈피해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7일 확정,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무엇보다 출산율 목표(2020년 1.5명)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런 목표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출생아 수 30만명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각 가정이 2자녀를 기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불합격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복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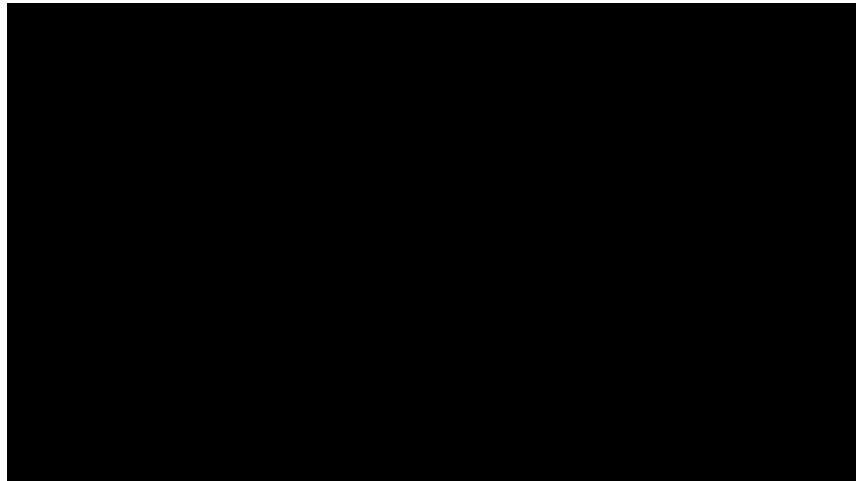


본적으로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일터나 가정에서 여성차별이 심하며, 그것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일터와 가정에서 남녀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생아 수는 1970년대만 해도 한해 100만 명대에 달했다. 그러나 2002년에 49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면서 40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5년 반짝 증가했다가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해 2017년 35만7천700명에 이어 2018년에는 32만6천900명으로 추락했다.

세계에서 한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으로 줄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작년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추락... "인구감소 빨라질듯"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출생아 수 하락, 고령화 상승(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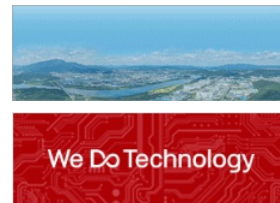
sh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7 12:00 송고

[#출산율](#) [#삼](#) [#저출산](#) [#출생아](#)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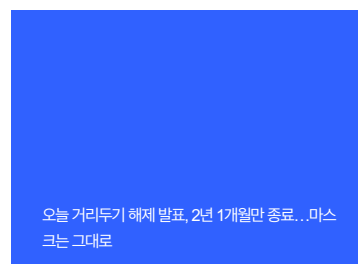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 "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쫓쫓...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췄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위
링크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135 찰에 고발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60 대병원 자원봉사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57 안 맞아"(종합)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
41 동재개 예열?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38 힐 예정"

뭐하고 놀까? #홍 →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피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피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